

# ‘식상한 듯 신선한 듯’ 지금 드라마 비슷한 장르 흐름



## 판타지 · 범죄 수사물 · 사극 열풍 등

‘봄이 오나 봄’ 역시 자신밖에 모르는 앵커 김보미(이유리)와 가족에게 헌신하는 배우 출신 국회의원 사모님 이복(엄지원)의 몸이 뒤바뀌면서 두 여인이 진정한 자아를 회복해가는 판타지 코미디 드라마다.

오는 2월 11일 시청자들이 만나게 될 JTBC 월화드라마 ‘눈이 부시게’는 로맨스를 장르로 하지만 두 여성배우의 활약이 기대되는 드라마다. ‘눈이 부시게’는 주어진 시간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여자 김혜자(김혜자, 한지민)와 누구보다 찬란한 순간을 스스로 내던지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남자 이준하(남주혁)이 같은 시간 속에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판타지 로맨스 극 중 한지민은 한순간에 늙어버린 25살 혜자, 김혜자는 몸은 70대지만 영혼은 20대인 혜자를 연기하며 2인 1역을 펼친다.

그런가 하면 기존의 범죄물에 판타지를 더한 경우도 있다. 오는 2월 11일 전파를 타는 MBC 월화드라마 ‘이템’ 또한 소중한 사람을 간절히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검사 강권(주지훈)과 프로파일러 신소영(진세연)이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물건들을 둘러싼 음모와 비밀을 파헤쳐 나가는 미스터리 추적 판타지 드라마다. 동명의 카카오페이지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이 드라마는 앞서 사랑 받았던 ‘시그널’ 터널처럼 사람이 아닌 물건에 신비로운 능력을 불어 넣었다는 점에서 흥미를 유발한다.

### ■ 흥행보조수표 수사물, 그 성적표는?

안방극장 흥행보조수표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의학드라마와 범죄, 법정 등을 다룬 수사물이다. 이 두 소재는 시즌마다 꼭 등장하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든다. 그중 최근 두드러지는 요소는 후자다.

오는 29일 종영을 앞두고 있는 MBC 월화드라마 ‘나쁜 형사’는 연쇄 살인마보다 더 나쁜 형사 우태석(신하균)과 매혹적인 천재 사이코패스 은선재(이설)의 위험한 공조 수사물이다. 말 그대로 동네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에피소드식으로 나아갔던 것과 달리, 이번 시즌에서는 거대한 악의 축을 차근차근 해결해나간다.

두 드라마는 장르 특성상 나쁘지 않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반응은 그리 좋지 않은 모양새다. 너무 자극적이고 설득력 없는 전개 등이 시청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후 방영을 앞두고 있는 작품들은 그 아쉬움을 채울 수 있을까.

오는 2월 8일 첫 방송하는 JTBC 금토드라마 ‘미생’은 평범의 일 본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법 조망의 카카오페이지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이 드라마는 앞서 사랑 받았던 ‘시그널’ 터널처럼 사람이 아닌 물건에 신비로운 능력을 불어 넣었다는 점에서 흥미를 유발한다.

두 드라마는 장르 특성상 나쁘지 않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반응은 그리 좋지 않은 모양새다. 너무 자극적이고 설득력 없는 전개 등이 시청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후 방영을 앞두고 있는 작품들은 그 아쉬움을 채울 수 있을까.

같은 달 11일 방송하는 SBS 금토 드라마 ‘열혈사제’ 역시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가톨릭 사제 김해일(김남길)과 구담경찰서 대표 형사 구대영(김성균)이 중대한 살인사건으로 만나 공조 수사에 들어가는 스릴스펜스 범죄 수사 드라마다. SBS가 주말극을 폐지하고 처음으로 선보이는 금토극으로 호기심을 유발한다. 특히 ‘미생’과 ‘열혈사제’는 앞선 드라마들보다 유쾌한 톤을 더욱 높여 시청자들과 만난다.

이웃러 오는 3월에도 tvN 드라마 ‘자백’, KBS2 ‘국민 여러분!’이 편성을 기다리고 있다. ‘자백’은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의 테두리에 거슬러 들어간 진실을 파헤치는 작품이다. ‘국민 여러분!’은 얼떨결에 경찰과 결혼한 사기꾼이 원치 않는 사건에 휘말리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내용으로 ‘자백’과 다른 분위기를 가져간다.

### ■ 리메이크부터 대작까지, 다시 불어닥친 사극 열풍

잠시 주춤했던 사극의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 현재 방송 중인 tvN 월화드라마 ‘왕이 된 남자’는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변란과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에 혼란이 극에 달한 조선 중기, 임금이 자신의 복수를 노리는 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쌍둥이보다 더 많은 광대를 궁에 들여놓으며 펼쳐지는 이야기다.

위낙 인지도 높은 영화를 다시 쓰기에 실망감을 안길 법도 하지만, 원작과는 다른 차별점을 선사하며 지지를 얻고 있다. 결말 또한 원작과 다르다는 PD의 전언이다. 게다가

여진구는 더욱 물오른 연기로 상반된 성격의 1인 2역을 해내며 벌써부터 호평받고 있다.

오는 2월 11일 첫 방송하는 SBS 월화드라마 ‘해치’는 전한 무수리의 몸에서 태어난 왕자 연영군 이규(정일우)이 열정 가득한 과거 준비생 박문수(권율), 사헌부 열혈 다모 여지(고아라), 저자거리의 떠오르는 율패 달관(박훈)과 함께 힘을 합쳐 대권을 쟁취하는 과정을 담은 내용이다.

이 드라마는 정일우가 군 전역 후 처음으로 선택한 작품이다. ‘불이 온 일지매’ ‘해를 품은 달’ 등으로 사극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준 그는 극의 중심을 안정적으로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다수의 사극에 출연한 경력은 없지만 사극과 잘 어울린 박문수(권율) 등은 지난 배우들이 힘을 보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 올하는 JTBC ‘나의 나라’를 비롯해 MBC ‘이몽’, KBS2 ‘의군’ 등 정통 사극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이기 때문이다. 오는 5월 방영 시기를 선택한 ‘이몽’은 본인에게 양육된 조선인 외국 의사가 상해임시정부의 첩보 요원이 돼 태평양 전쟁의 회오리 속에서 활약을 펼치는 이야기를 그린다. 유지태와 이요원이 주연을 맡았다. ‘의군’은 선전적 첩부지 금수저 도련님이었다던 청년 안용철이 건국 이래 가장 드라마틱했던 운명의 시군들을 온몸으로 겪으며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을 강타한 영웅 안중근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이다. 캐스팅은 아직 진행 중이며, KBS는 300여 원대 제작비를 쏟아부으며 대작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드라마 종영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이는 곧 첫 방송하는 작품들 또한 대거 대기하고 있다는 뜻. 이렇게 오고 가는 드라마들은 판타지와 범죄, 법정을 비롯한 수사물 그리고 사극까지 어느 정도 비슷한 장르의 흐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지금의 브라운관을 뜨겁게 달군 앞으로의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 여성 중심 판타지, 반복되는 장르의 피로감 풀어줄까

판타지적인 요소는 드라마 시장

에서 꾸준히 쓰여 왔다. 가장 자주 쓰이는 판타지는 서로의 영혼이 뒤바뀌거나 시간과 관련된 것들이다. 대중의 흥미를 쉽게 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만큼 시청자들이 쉽게 질리고 피로감을 느낀다는 맹점이 있다.

그 가운데 최근 방영을 앞둔 드라마들은 여기에 더해 차별점을 갖는다. 보통 판타지가 남녀간의 애라는 로맨스를 그리기 위해 사용되는 편이 많았다면 요즘의 드라마들은 여성 배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9일 첫 방송한 MBC 수목드라마

##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MV 5억뷰 돌파



뮤직비디오를 2편이나 보유하게 됐다. K팝 그룹 중 최다 기록이다.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28일 ‘마지막처럼’ 뮤직비디오의 5억뷰 돌파를 기념, 공식 블로그에 축전을 공개했다.

‘마지막처럼’ 뮤직비디오는 지난 2017년 6월 공개 당시 17시간 만에 1천만뷰를 돌파하며, K팝 걸 그룹 중 최단 시간을 기록했다.

같은 해 유튜브로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K팝 비디오’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 8억뷰를 돌파한 ‘뚜뚜뚜’ 뮤직비디오는 ‘K팝 그룹’ 최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5억 뷰를 돌파했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데뷔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5억 뷰 이상’

뮤직비디오를 2편이나 보유하게 됐다. K팝 그룹 중 최다 기록이다.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28일 ‘마지막처럼’ 뮤직비디오의 5억뷰 돌파를 기념, 공식 블로그에 축전을 공개했다.

단 기록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최근 미국 팝 전문지 빌보드와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블랙핑크의 ‘뚜뚜뚜’ 뮤직비디오가 K팝 그룹 가운데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 중”이라며, 블랙핑크의 압도적인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블랙핑크는, 국내 여자 솔로 가수 최단 기록으로 1억 뷰를 돌파한 제니의 ‘SOLO’를 포함, 데뷔 이후 지금까지 발표한 7편의 뮤

직비디오가 모두 유튜브에서 역대 뷰를 돌파하는 대기록을 쓰고 있다.

블랙핑크의 유튜브 파워는 단순히 ‘뮤직비디오 조회수’에만 그치지 않는다.

‘뚜뚜뚜’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봄비야’는 이례적으로 ‘안무 영상’까지 유튜브 조회수 1억뷰를 돌파해, 블랙핑크의 춤에 대한 전세계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실감케했다.

더불어 블랙핑크는 유튜브 채널

에서 구독자수 약 1천800만명을 보유, K팝 그룹 중 ‘최다 구독자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K팝 걸그룹 최초로 유튜브로부터 ‘다이아몬드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받았다.

블랙핑크는 이같은 글로벌 영향력으로 지난해 10월 미국 최대 음반사 유니버설뮤직의 레이블 인터스코프와 손잡고 미국 진출을 예고했고, K팝 그룹 최초로 오는 4월 세계적 음악 페스티벌인 ‘코첼라’ 무

대에 오를 예정이다.

K팝을 대표하는 그룹으로 훌쩍 성장한 블랙핑크는 데뷔 첫 월드투어를 대규모로 펼치며 글로벌 걸 그룹의 행보를 이어간다. 방콕, 자카르타, 홍콩에 이어 마닐라,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타이베이를 거쳐 북미, 유럽, 호주에서도 콘서트를 개최한다.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 블랙핑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높이 비상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는 형님’ 황금돼지해 특집 최고 시청률 7%

설 연휴를 앞두고 방송된 ‘이는 형님’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시청률 조사 회사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8일 에 방송된 JTBC ‘이는 형님’ 164회의 시청률이 7.0%의 기록으로 금년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이하 수도권 유료가구 기준).

2019년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타겟 시청률은 4.4%를 기록했다. 지상파와 비지상파를 합쳐 동시간

대에 방송된 프로그램 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164회 방송은 설 연휴를 맞아 ‘황금돼지해’ 특집 1탄으로 꾸러졌다. 가수 문희준, 방송인 설 해민, 가수 문희준, 배우 태항호가 출연해 예능감을 뽐냈다.

문희준은 평소 절친한 이는 형님들과의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강호동에게 예능 트레이닝을 받았었다. 얼마 전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을 때도 호동이 형을 언급했다”라며 강호동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또한 군 입대 전 술자리에서 만난 민경훈에게 ‘복’에 대해 설명해야 했던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돈파이크는 남다른 ‘고기 사랑’으로 큰 웃음을 자아냈다.

최고의 작곡가이지만 장래희망은 고기집 사장이라고 밝힌 돈스파이크는 강호동에게 인정을 받기

도 했다.

이해 형님들과 함께 콜라 브랜드를 만드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작했는데, 모든 브랜드를 완벽하게 구분해 감탄을 자아냈다. 이어진 돈스파이크와 서장훈의 ‘소고기 블라인드 테스트’ 대결 역시 눈길을 끌었다.

돈스파이크는 과거지사로 소고기 부위를 가려내며 ‘소고기 감별사’에 등록했다.

토요일 밤의 예능 강자 JTBC ‘이는 형님’은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된다.

### 오늘의 운세 2019년 1월 28일 월요일 (음력 12월 23일)

- ▶ 쥐띠** 덜 듯하면서도 풀리지 않을 때는 잠시 후회했다가 다시 계획 세우는 것이 순해 면할 수 있다. 1, 3, 6월생은 첫 발을 잘못 디더 놓았기에 항상 혼자인 것처럼 외롭구나. 그, 0, 8성씨는 매사에 신경 쓸 일분. 잠시 편안한 휴식이 필요하다.
- ▶ 돼띠** 의욕이 상실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 동업했다면 처음 시작할 때처럼 사이 원만하면 더이상 바랄 게 없겠다. 서로 자존심 버리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웃음 속에 대성할 수 있다. 1, 5, 7월생은 동복쪽이 길하다.
- ▶ 호랑띠** 2, 5, 7월생은 옹고 그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자신에게 해가 없다. 주위에서 아무리 조언한다 해도 결정은 자신이 하는 것. 한순간의 결정이 영원한 것이니 속단하지 말고 대처하라. 기혼자는 처가에 신경 쓰고 미혼자는 곧 배우자 찾게 될 듯.
- ▶ 토끼띠** 우연한 농담이 진담이 되어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친한 사이라도 때로는 언행에 신중을 기함이 좋을 듯. 이제까지 몸담아 있던 곳을 떠난다면 후회뿐이다. 0, 2, 8성씨는 남, 동쪽에 행운이 열린다. 붉은색은 삼가.

- ▶ 용띠**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 손실이 없다. 물질적보다 마음에 상처가 크며 마음먹은 대로 안되니 속만 상할 뿐. 2, 7, 10월생은 결단력 없이 사람 사귀려 들지 마라. 짝사랑할 뿐. 서두르지 말 것.
- ▶ 닭띠** 어느 누구든 인생에 대해 조언은 해줄 수 있어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비판만 하지 말고 올바른 길 찾아라. 때를 기다리면서 수양에 힘쓸 때. 당신을 도와줄 사람 나타나니 자존심 버려라. 함께 할 때 어려운 일 손조롭게 풀릴 듯.
- ▶ 양띠** 단기적인 승부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세워 추진한다면 생각보다 득이 크다.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함께 갈 사람 찾지 마라. 2, 5, 8월생은 동업은 금물. 사, 자, 8성씨는 사랑하는 사람 떠나는 격이니 고심할 뿐.
- ▶ 돼띠** 신간에 넘쳐 있는 패기는 좋지만 계획에 얽힌 외출은 삼가라. 친분 있는 사람과 지나치게 행동하다 실수가 있을 수 있다. 0, 2, 8성씨는 자기가 한 일에는 책임 있는 사람이 요구된다. 점차적으로 본인 귀도에 들어오니 걱정 사라질 듯.

- ▶ 원숭이띠** 능력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활동한다면 좋은 성과 있겠다. 용기와 자신을 갖고 끈기 있게 밀고 나가라. 서, 남쪽에서 도움이 있을 듯. 친지간에 불화 예상되니 언행에 각별히 신경. 1, 3, 9월생은 그, 사, 2성씨를 조심. 구설이 따른다.
- ▶ 닭띠** 진실이 요구되는 오늘이다.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면 자기 뜻에 걸릴 염려 있다. 머리는 누구보다 뛰어나지만 용기가 없다. 어떤 것이든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대하라. 동업은 금물. 원망의 소리 높아진다. 그, 0, 8성씨는 갈등은 이제 그만.
- ▶ 돼띠**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용이 재산이다. 현재만 생각하고 상대를 기만한다면 신용 잃고 사람도 잃게 된다. 감정을 억제하고 미래 지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1, 8, 10월생은 기혼자는 애정 문제로 갈등 겪을 수 있다.
- ▶ 돼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유비무환이 필요할 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고 일찍 귀가함이 좋을 듯. 취중에 시비 우려된다. 하는 일 잘 된다고 마음 들뜨지 말고 책임을 다하며 마무리에 신경써야 할 듯. 3, 9, 11월생은 추진하는 일 길하다.